# ‘중국 꽃가루’ 통관체계 허술 밀수입 부추기고 전염병 유입

최근 중국을 통해 사과나 배의 착과를 위한 ‘인공수분용 화분(花粉)’이 국내로 우후죽순 반입되고 있으나 통관 과정이 허술해 밀수입이 판치고 있다.

이 경우 자칫 국내 식물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병해충이 유입돼 자칫 국내 과수농가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통관 과정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나주지역 과수농가들에 따르면 지난 2006년도 중국산 ‘인공수분용 화분’이 처음 수입돼 판매된 이후 매년 2~4월이면 중국을 통한 업체들의 수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 검역당국이나 세관 등이 ‘인공수분용 화분’이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해 소량일 경우 정상적인 수입절차 없이 버젓이 통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공수분용 화분’의 경우 전염성이 높은 과수 잎이 검게 타들어가는 ‘화상병’ 등 유사 균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식물보호 협약에 따라 수입과 수출을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입량이 적은 소량이라도 수출 상대국의 검역증명서를 통관 과정에 첨부하도록 하는 등 별도의 엄격한 검역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국내 검역당국과 세관의 경우는 여행객의 휴대품으로 5~10kg 가량을 들여올 경우 이 같은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도 국내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입국 과정에 적발되더라도 소량이라는 이유로 상대 수출국의 검역증명서 없이 통관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K씨(54·나주시 왕곡면)는 “지난해 휴대품으로 20kg을 들여왔는데 세관이나 검역 등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현재 정상적인 수입 절차 없이 이 같은 방법의 밀수입이 가능한 상태다”고 말했다.

하지만 10kg 가량의 ‘인공수분용 화분’이 국내에 반입될 경우 국내 과수농가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이 100만평 이상이나 돼 탈세는 물론이며 이 과정에 자칫 식물에 치명적인 화상병 등이 유입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97년도 강원도 춘천 등지에서 화상병 등이 발병해 인근 지역으로 50km 범위까지 급속도로 확산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었다.

화상병 유사균주 등은 현재까지 치료약이 없어 병에 걸린 나무는 불에 태워 없애는 방법뿐인 것으로 알려져 국제검역 법정 규제병으로 규정해 발병한 국가에서의 과일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다.

국립 식물검역원 호남지원 광주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우편이나 휴대로 반입할 경우는 수출상대국 검역증명서 없이도 통관을 시켜주고 있는 입장이다”며 “소량이라도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관련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바람개비에 꿈 실었어요”**

화순 동면초등학교(교장 류재관)는 지난 23일 교내 꿈동산에서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교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꿈동산 바람개비 달기’ 행사를 가졌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kwangju.co.kr

## 월출산 자연 훼손 집중단속

### 공원사무소 내달 11일까지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갑동)는 봄 행락철을 맞아 탐방객 증가에 따른 자연자원 훼손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땅끝기맥 산행코스인 풀치재~밤재 구간을 비롯한 비법정 탐방로(샛길) 출입과 식물채취, 산림훼손 등이다.

송형철 자원보전과장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중 국립공원 특별 사법경찰관에게 적발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국립공원내에서 준법 질서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부취재본부=문병선기자 moon@

## 나주 ‘농산물 거점 산지유통센터’

# 전국 경영평가 ‘최우수’

나주시 ‘농산물 거점 산지유통센터’(APC)가 농림수산식품부의 전국 과실 전문 APC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센터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24일 나주시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가 유통 전문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위탁,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14개소의 과실 전문 APC의 2010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했다.

평가결과 나주시 ‘농산물 거점 산지유통센터’가 평가대상 9개 항목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2010년 매출액이 204억원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200억원을 초과했으며, 매출액 성장률이 83.2%로 전국평균 40.5%의 2배를 초과하고 계약 재배율도 76.7%로 유일하게 목표치 60%를 초과 달성했다.

이로 인해 산지유통 종합자금 20억원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 경영활성화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나주시 ‘농산물 거점 산지유통센터’는 FTA체결에 따른 국내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기금과 도·시비 187억원을 투자해 선별 포장실, 저온 저장고, 신선 편이시설, 학교급식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 같이 단기간에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은 관내 15개 농협 등이 출자해 농협 공동 사업법인을 구성, 다양한 마케팅을 펼친 결과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중부취재본부=정칠현기자 chjung

# 장흥 ‘정남진 천문관’ 인기

## 개관 5년째 유료관광객 3만명 다녀가

장흥읍 억불산에 위치한 ‘정남진 천문과학관’이 새로운 야간 테마형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24일 장흥군에 따르면 ‘정남진 천문과학관’이 지난 2006년 7월 개관이후 꾸준히 관람객이 방문해 유료 관광객 3만명 이상이 다녀갔다.

장흥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야간에 ‘정남진 천문과학관’에서 별을 보고, 편백숲 ‘우드랜드’에서 숙박을 하면서 도심에서 지친 몸의 피로를 풀 수 있고 있다는 것.

특히 ‘정남진 천문과학관’은 천체관측뿐만 아니라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편성해 관람객들에게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에 ‘천문 페밀리 데이’를 들 수 있다. 또 여름방학에는 ‘여름밤 별빛 속으로…’를 통해 별자리판 만들기 등을 체험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천문동아리 지원과 소외계층 학생 대상 관측회를 열고 있다. 광주·전남 50인 이상의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 관측회로 ‘찾아가는 천문과학관’도 운영하고 있다. 문의(061-860-0651)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고침=24일자 11면에 게재된 ‘곡성 토종 흑돼지 부활’ 내용 가운데 마리당 가격을 60만원으로 바로 잡습니다.

# 화순군 ‘결핵 퇴치’ 나선다

## 환자들에 입원비·생계비 등 지원

화순군이 다음달부터 결핵 조기퇴치에 발벗고 나선다.

화순군은 결핵환자 입원비중 법정 본인부담금 전액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식비 등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층 입원환자는 부양가족 생계비를 지원해 결핵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의료기관에서 결핵균 양성환자로 진단받은 환자의 가족과 동거인에 대해서도 흉부 엑스선검사와 감염 여부 검사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군 보건소는 결핵환자의 입원이 가능하도록 화순 전남대병원 외 3개 병원에 음압 격리병상 4개와 일반 격리병상 15개를 확보했다.

한편 화순군보건소는 지난 2월 주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결핵 이동검진을 실시, 128명의 이상자 등 22명의 유소견자에 대해 치료와 2차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 전 북

**어르신들과 함께 떠나는 내고장 문화탐방**

남원경로당 노인들이 지난 23일 운봉읍 화수리 국창 박초월(1917~1983) 생가를 찾아 문화관광 해설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문화탐방은 남원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운봉 황산대첩비와 금지 김주열 열사 묘소 등에서 진행됐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kwangju.co.kr

## 새만금 주요 오염원 김제 용지면 일대

# 수질·환경개선 680억 투입

새만금의 주요 오염원인 김제시 용지면 일대 환경과 주민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김제시청에서 관계부처 관계자와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유역 제2단계(2011~2020년),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김제 용지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총 680억원(국비 440억원·지방비 240억원)을 들여 ▲생활환경 개선 ▲생태환경 복원 ▲가축분뇨 처리 등 3개 분야 사업을 진행해 일대 환경을 개선하고 한센인의 생활환경 및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용지면 용암리(신암·비룡·신흥마을)내 휴·폐업 축사(196동·10만3425㎡)를 매입, 철거하고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용지 용암리 일대는 현재 돼지 4만3800마리, 닭·오리 44만4000마리, 소 237마리 등이 사육돼 하루 264t의 축산폐수가 배출된다.

또 마을하수도(하루 180t)를 설치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을 증설해 하루 100t의 처리용량을 300t까지 늘릴 예정이며, 한센인을 위한 복지회관 2동도 신축된다.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서는 2013년까지 용암·마산천을 생태하천(14㎞)으로 복원하고 축분이 남은 웅덩이를 정비해 생태습지로 조성한다.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과제로는 정부와 주민이 가축분뇨 처리 및 사육두수 관리를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해 이행케 하며, 축사 신·증축 제한, 가축분뇨 처리장을 운영해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그동안 요구한 사항이 대개 반영됐다”고 반색하며 정부의 축산선진화 대책이후 용지 축산단지에 대한 지원방안도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용지지역은 1960년대부터 한센인과 일반인이 축산업을 해오면서 악취와 축산분뇨로 인해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특히 축산폐수가 인근 만경강과 새만금으로 흘러가 수질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 ‘고창 수박’ 도내 전역 재배

## 전북 수박연구회 출범…재배기술 등 농가 전수

전북도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고창 수박’을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도는 24일 고창군 대산면 수박시험장에서 ‘명품 수박 광역화 추진전략 발대식’과 ‘전북도 수박연구회’의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도 수박연구회 회원과 지역별 수박작목반, 농약·종묘업자,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수박 생산농민과 연구·지도직 공무원, 유통업 종사자 등 23명으로 구성된 ‘광역화사업 추진팀’은 고창수박의 유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14개 시군별로 수박의 출하시기를 조절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다.

또 수박연구회는 고창수박을 도내 다른 시·군 농가에서 도입해 재배할 수 있도록 재배기술과 유통기법 등을 해당 농가에 전수할 계획이다.

수박시험장 관계자는 “광역화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옛 고창수박의 명성을 회복하고 전북 수박을 연중 생산체제로 전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도내 인근 시군으로 수박재배 기술 등을 전파해 전북이 명품수박의 중심지로 주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수박생산액은 9393억원으로 이중 전북은 13%(1221억원)를 차지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소외이웃에 화재경보 무상 보급”

## 김제소방서 현장 맞춤형 소방 대책 마련

김제소방서(서장 김화성)가 건조하고 강풍이 많은 봄철을 맞아 현장맞춤형 소방 안전대책과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저감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제소방서는 다음달 31일까지를 ‘봄철 소방안전대책 중점 추진기간’으로 설정하고 시민 안전의식 재확립을 위해 현장활동 중심 소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화재 취약대상 및 공사시설업 관계자의 안전관리 자기책임제 실현을 위한 간담회 실시와 저소득·소외계층 주거시설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 무상보급 설치 등 소방기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현장맞춤형 대응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김제소방서는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 저감대책으로 ▲기초소방시설 확대보급을 통한 화재예방·대응 시스템 구축 ▲취약계층 소방 안전지킴이 지정을 통한 안전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목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불꽃감지기와 화재속보기를 설치했으며, 금산사에는 전북지역 최초로 소방차를 배치했다.

한편 김제소방서는 19개 행정동(1 읍·14면·4동), 인구 9만4770명을 비롯해 ▲금산사 등 문화재 16개 ▲특정소방대상물 3609개 ▲위험물 제조소 등 545개 ▲다중이용업소 133개를 관할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 단신

### 전북농기원 ‘감자 소주’ 특허 출원

전북도 농업기술원이 감자를 이용한 ‘증류식 감자소주’와 이를 이용한 ‘리큐르 제조 방법’을 특허 출원했다.

감자소주는 전통방식으로 제조한 알코올 함량 40%의 맑고 투명한 소주로, 기존 증류주의 자극적인 향과 산취를 바꿔 감미로운 맛을 느낄 수 있으며 총페놀 함량이 풍부해 건강에도 좋다.

농기원은 감자소주 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저도주(알코올 함량 16%) 개발에도 착수해 조만간 젊은 층에 맞는 부드러운 감자소주를 내놓을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전주시 내일 ‘천년 전주 마실길’ 걷기대회

전주시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천년전주 마실길’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천년전주 마실길’ 구간중 전주생태박물관에서 출발해 좁은목약수터~남고산성~삼경대를 거쳐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 구간으로, 1시간 30분이 소요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마실길 걷기행사로 많은 시민들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아울러 외부 탐방객을 유치, 전주 한옥마을과 더불어 전주의 새로운 명소로 부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응철기자 k0765@

### 군산시 ‘해외 연수 장학생’ 선발

군산시는 다음달 4일부터 15일까지 ‘2011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장학생’ 신청접수를 받는다.

참가신청은 군산시 인재양성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장학생 선발은 1차 서류심사(군산시)와 2차 면접심사(전북 인력육성재단)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5월 27일 최종선발 한다.

선발 인원은 초등생 41명·중학생 26명으로 연수국가는 영어권(캐나다·호주·뉴질랜드)과 중국 등이다. 고등학생 25명(특성화고)과 대학생 25명은 전북 인재육성재단에서 선발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유출 판별 기술 개발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 유승호 박사팀이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유출 여부를 현장에서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개발된 기술은 침출수 의심 시료를 1㎖가량 채취한 후 시료 속에 포함된 가축 사체 유래 물질의 농도와 총유기탄소농도(TOC)의 비율을 분석, 침출수 유출 여부를 30분~1시간 만에 판별할 수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